중동 · 아시아 하늘을 찌르는 '선진국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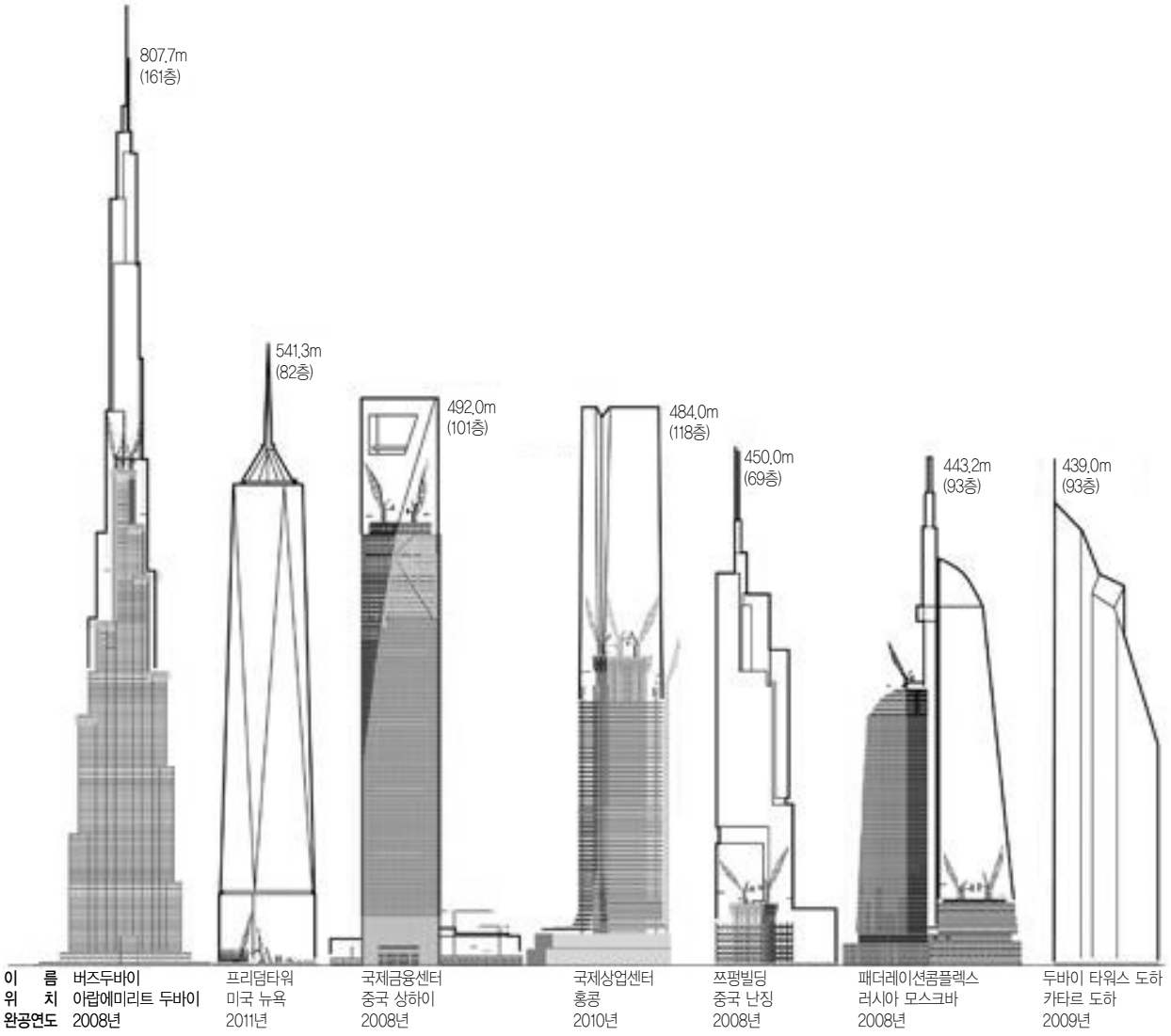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 간 국가적 자부심 경쟁이 초고층 빌딩 건축 붐을 낳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축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초고층 빌딩은 모두 42개로, 이 가운데 15개가 두바이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초고층 빌딩 건축 붐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열망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통상 높이 304.8m(1,000ft)를 넘는 건물을 일컫는 초고층 빌딩 건축 계획은 현재 '오일달러'가 넘쳐나는 중동이 주도하고 있다. 국제금융허브를 꿈꾸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버즈(Burj)두바이'가 2008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건축주들이 최종높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버즈 두바이가 807.7m(161층)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카타르의 도하,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티 에서도 초고층빌딩 건축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의 마천루(摩天樓) 건설 붐도 거세다. 버즈 두바이와 뉴욕 프리덤 타워(541.3m · 82층)에 이어 현재 공사 중인 건물 중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上海)의 국제금융센터(492m · 101층)를 비롯, 홍콩 국제상업센터(484m · 118층), 난징(南京)의 쯔펑(紫峰)빌딩(450m · 69층) 등 6개의 초고층 빌딩이 지어지고 있다.

고층빌딩의 원조 격인 미국은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개의 초고층 빌딩이 건설 중이다.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지어질 프리덤 타워(541.3m · 82층) 등 3개는 뉴욕시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타워(415.1m · 92층) 등 2개는 시카고에 지어진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도 인천 송도인천타워



건축중인 세계 초고층 빌딩

(613m · 151층)와 서울 용산랜드마크빌딩(623m · 151층) 등 최대 12개 정도 초고층 빌딩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공과 민족주의적 열정이 건축 붐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적 열망이 초고층 빌딩 건축을 앞에서 이끄는 힘이라면 건축술의 발달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높이 509m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대만의 '타이베이(臺北)101빌딩'의 경우, 꼭대기에 케이블로 연결된 600t 짜리 추(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건물의 흔들림을 막아주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2007. 5. 28 조선일보 발췌〉